

CKU 치위생소식

E.YO NEWS - vol.1

2021년 4월

발행처 : 가톨릭관동대학교 치위생학과
홍보동아리 이.요 [E.YO]



[치위생학과 19학번 단체사진 (2019.5)]

이달의 소식

- 하나가 된 우리들의 치위생학과 : 동아리로 하나가 되어보자
- 내가 가톨릭관동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생이다! : 우리의 첫 과잠, 실습복, 실습실
- 치위생학과 제 3대 학생회 '우화' : "저희가 꽃비 내려드릴게요"
- 함께한, 함께 할 치위생학과 : 설레는 우리들의 첫 만남 - 치위생학과 신입생 OT
- OT 후기 모음



"하나가 된 우리들의 치위생학과" : 동아리로 하나가 되어보자



2021학년도 1학기, 새파란 하늘에 벚꽃이 하늘하늘 흩날릴 때 시작된 치위생학과 의 첫 과 동아리들. 가톨릭 관동대학교 치위생학과는 2019년 처음으로 신설되어 2021년, 봉사동아리인 “덴티어”, 스터디 동아리인 “DHSG” 그리고 홍보동아리 “이요”가 개설되었다. 첫 과 동아리인 만큼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개설하였으며, 그만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동아리들이다.

간단한 동아리 소개와 함께 각 동아리 대표들의 인터뷰를 들어보았다.

1. 봉사동아리 1. “덴티어(Denteer)”

[Dental의 ‘Den’과 volunteer의 ‘teer’의 합성어]

봉사 시간 이수 목적으로 행하지 않는 무(無) 대가성 봉사동아리이다.

<덴티어 대표 3학년 문수민 학생 인터뷰>

안녕하세요, 치위생학과 3학년 문수민입니다. 저희 동아리 이름인 ‘덴티어(Denteer)’는요, ‘Dental’의 ‘Den’과 ‘Volunteer’의 ‘teer’를 합친 합성어로 치위생학과 의 첫 봉사 동아리입니다. 저희 덴티어는 치위생 관련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치위생학과 학우분들이라면 누구든, 언제든지 동아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덴티어는 예비 치과위생사로서 갖춰야 할 태도를 습득하고,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여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로에 대한 고찰을 하는 동시에 선후배 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봉사가 가능한 기관에 학생들이 직접 가서 대면 봉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대면 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 전문보건의료인으로서 타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태도를 습득하고 갖추는 것은 비대면 봉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저희 덴티어에서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모색하고 기획해 다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위생학과 의 첫 동아리였던 만큼 많은 학우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인 덴티어 부원들의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덴티어의 회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많은 봉사 활동을 기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스터디 동아리 “DHSG”

[Dental Hygiene Study Group]

치위생사 국가고시 합격률 증진, 전공과목 성적 향상, 학과 단합력 증진, 친목도모 등을 목표로 하는 스터디 동아리이다.

<DHSG 대표 3학년 이은주 학생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저는 치위생학과 스터디동아리 DHSG 회장, 이은주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운 전공과목들을 동기들과 다 같이 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우고, 보다 즐겁게 학과 공부하기 위해서 개설되었습니다. 또한, DHSG 동아리를 통해, 치위생학과의 최종 목표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합격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수 있고, 동기들 또는 선후배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스터디 진행 방법은 총 2가지로, 3학년 동기들끼리 진행하는 방법과 후배들과 선배들이 함께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3학년 동기들끼리 진행할 때는 그 주제 배운 실습내용을 복습하거나 수업시간에 필요한 이론 공부를 합니다. 또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과목들은 스터디 멤버들과 결정해서 국가고시 문제집을 풀거나 공부합니다. 그리고 국가고시 문제집을 공부할 때는 그 과목에 대한 개념공부는 각자 집에서 공부한 후, 범위를 정해서 문제를 풀고, 스터디 시간에 조원들끼리 돌아가면서 문제풀이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선후배들끼리 하는 스터디 진행은 후배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을 정해서 국가고시 문제를 같이 풀거나, 모르는 부분을 선배들에게 질문하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스터디 전에 자신이 미리 공부해서 부족한 개념이나 모르는 것들을 정리한 후, 선배들에게 질문하면 됩니다.

치위생학과는 전공 특성상, 암기할 내용이 많고, 과목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DHSG 동아리를 통해, 좀 더 전공과목과 친해지고,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합격을 위해 다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홍보 동아리 “이요(E.YO)”

[E.YO : 이빨 요정의 줄임말로, 날개 달린 요정과 같이 소식을 나른다는 뜻]
코로나로 흩어진 선후배들 간의 소속감 재형성, 학과 내 소통과 교류의 창, 학우들의 학과에 대한 관심 증가 및 학과 발전에 이바지, 그리고 학과에 대한 지식의 폭 증가를 목표로 하는 홍보동아리이다.

<이요 대표 3학년 박예진 학생 인터뷰>

안녕하세요 :) 치위생학과 홍보동아리 회장 19학번 박예진입니다. 저희 동아리 첫 신문에 제 인터뷰가 실린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대학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나 묻는다면 자신 있게 동아리 활동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1학년 2학기부터 교내 중앙 동아리에서 거의 2년 동안 활동하며 타과 선후배들과 교류하고 동아리원이라는 소속감을 갖는 것은 저의 대학생활 중 매우 인상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반면에 계속된 비대면 수업으로 서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학교를 다니고, 학교에 와보지도 않은 채 2학년이 되어 버린 20학번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소통이 단절된 학과를 지켜보면서 선후배간의 소통과 잃어버린 소속감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고, 저의 동아리 활동 경험을 통해 그동안 없던 학과 동아리 개설하는 것이 소통의 창이 되어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동아리 개설을 결심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소통과 화합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모여서 의미있는 활동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까지 고안하던 중 학과 학생회에서 '치위생학과 신문'을 만드는 활동을 계획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과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과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선후배간의 많은 교류를 통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평소 제가 원했던 동아리의 이상향이었고 또한 동아리원들과 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록 소속감을 넘어 학과에 대한 자부심까지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학생회와 연계하는 '홍보 동아리'를 2021년 새학기 때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홍보동아리라는 타이틀 안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며 학과에 대한 이해도 및 부원들 간 결속력 상승을 바라보고 활동하려합니다. 저희는 현재 단순히 신문 뿐 아니라 학과 SNS에 올라갈 카드뉴스와 학업에 지친 학우들을 위해 간간이 이벤트성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톨릭관동대학교 치위생학과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도전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시작단계이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간다면 이요가 학생들 사이 주된 소통의 매개체 역할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2019년에 신설과로 입학한 우리들이었기에,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전통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록하는 이요가 되겠습니다.

1팀-3학년 이하윤, 황유정 / 2학년 박정은

"내가 가톨릭관동대학교 치위생학과의 학생이다!"



치과위생사의 상징 연보라색 과잠



이 사진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치위생학과 19학번 학생들이 과잠을 입고 찍은 사진이다. 과잠의 색상은 학우들끼리 의논하여 치과위생사를 상징하는 색인 보라색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앞면 왼가슴에 C는 가톨릭관동대학교를 상징하는 마크이다.



뒷면 등판에는 치과위생사를 뜻하는 Dental Hygiene 이 적혀있다.

오른쪽 팔엔 19학년도 신설된 가톨릭 관동대학교 치위생학과 1기 학생회 및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디자인하게 된 가톨릭관동대학교 치위생학과만의 마크를 넣었으며, 왼쪽 팔엔 입게 될 학생들의 학번을 넣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치위생학과만의 마크는 학과가 개설된 2019년도와 그 밑에 치아를 그려 넣고, 주위에 가톨릭관동대학교 교화인 산수화를 둘러 넣었으며, 테두리 라인에는 치과위생사를 뜻하는 Dental Hygiene, 치위생학과의 단과대인 의료융합대학을 뜻하는 Medical Convergence college를 넣어 디자인하여 치위생학과의 정체성을 강조하였다.





이 모든 것들을 학우들이 의견을 모아 만들었기에 당시 학과의 선배가 없고, 만들어져 있던 인프라도 없어 자칫 끈끈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던 학우들의 단합력을 더욱 고양 시켰으며, 치위생학과 1기 학생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단정한 마음가짐의 상징 실습복



<임상치위생학 과목에서 back position으로 실습을 하고있는 학생의 모습이다.>

현재 3학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습복은 진한 보라색의 실습복이다. 내년 20학번 학생들은 남색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반팔과 긴바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왼쪽 주머니에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상징하는 문장이 새겨져 있어 실습복을 착용할 때마다 긴장감을 심어주어 실습도 임상에서와 같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현재 실습복은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 과목에서 착용하며 실습복을 착용할 때에는 몇 가지의 규칙이 존재한다.



첫째, 손톱의 길이가 짧아야 하며 네일아트를 금한다.

이는 손톱의 길이가 길면 기구를 제대로 잡지 못할뿐더러, 환자의 구강에 손상 및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흰 양말과 실습화를 착용해야한다.

실습화를 착용하는 이유는 실습실의 감염관리 및 청결유지 때문이다. 평소에 신던 신발을 신고 실습실에 들어서면 바깥에서의 오염물들이 실습실 내로 퍼질 수 있는데 이는 치과 재료 보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항상 흰 양말 및 실습화를 신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머리망을 착용해야 한다.

머리망 또한 위생과 관련되어 있으며 대상자 실습 시 대상자에서 머리카락이 닳아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머리카락으로 인해 동작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방지한다.

넷째, 휴대폰 지참을 금지한다.

치과에 가면 치과위생사들이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지 않는 것처럼 치위생학과 학우들도 실습도 임상에서와 같이 휴대폰을 지참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마찬가지로 감염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마지막 다섯째, 악세서리 착용을 금지한다.

실습 시에는 날카로운 기구나 재료는 항상 존재한다. 날카로운 기구는 악세서리인 피어싱이나 반지, 귀걸이에 걸리기 쉽고 자칫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까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악세서리 사이의 흠집들에 세균이 축적되어 감염관리에 취약해질 수 있어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습복 착용 시 지켜야할 사항은 모두 기본적으로 실습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다.



하얀 마음의 상징 오픈가운

“

치위생학과의 오픈가운 또한 치위생학과 학생을 상징하는 문장인 ‘DENTAL HYGIENE STUDENT’ 와 그 이니셜인 ‘DHS’가 새겨져 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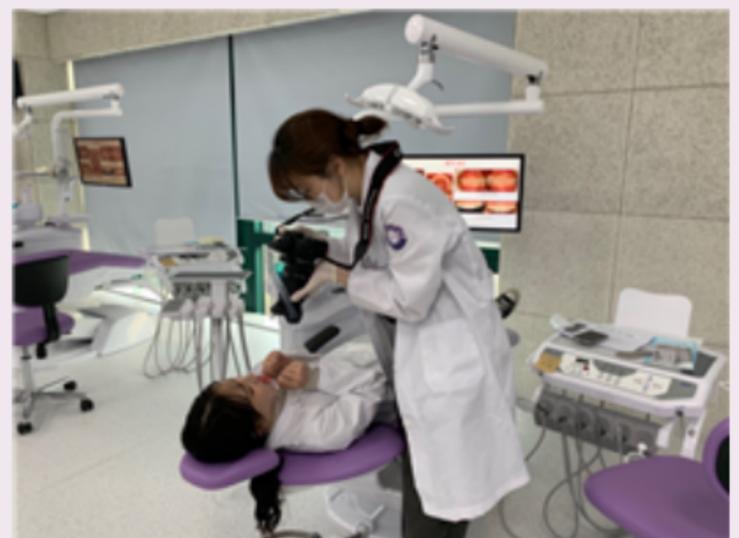
오픈가운은 흰색으로 오염물의 발견이 빠르고 정직한 진료와 청결함 및 신뢰감을 상징한다. 오픈가운은 실습복과 마찬가지로 착용할 때마다 긴장감을 심어주어 실습도 임상에서와 같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해준다.

”

“

알지네이트 실습 및 레진 실습 등 다양한 치과재료를 사용하는 실습 시 오염물이 피부나 옷에 묻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현재 2학년은 치면세마론 수업에서 착용하고 3학년은 임상전단계 실습에서 착용하고 있다.

”



가톨릭관동대학교의 치위생학과 실습실



<치위생학과가 주로 사용하는 의료융합대학 전공관 '바오로관'의 모습이다.>

202-1호는 감염관리실로 실습 시 사용한 치과기구들을 소독 및 멸균하는 곳이다.



치위생학과 학우들이 직접 소독 및 멸균 작업을 하며 감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는 공간이다. 또한 실습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사물함도 같이 있어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이다.



202-2호는 현재 2학년의 치면세마론 실습과 3학년의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주로 덴티폼을 고정할 수 있는 마네킹과 학우들의 건강한 자세를 위한 스톨이 준비되어 있어 마네킹 실습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곳은 실습복과 실습화를 착용하고 들어서는 곳이며 감염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위 사진은 203호의 사진이다. 203호는 향후 치위생학과 학우들의 상호실습 및 대상자 실습이 이루어질 공간이다. 3학년들이 작년에 이곳에서 코드 삽입 및 알지네이트 실습 특강을 들었으며, 지금은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실습하며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며 준비하고 계신다.



이 사진은 219호이다. 219호는 현재 3학년들의 임상전단계 실습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3학년들은 러버댐 장착, 와동 치아의 레진 충전, 시멘트 믹싱, 알지네이트 인상채득과 석고 등 다양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습 시 사용한 치과 기구를 세척할 수 있는 공간 및 학우들이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 실습실도 마찬가지로 오픈가운과 실습화를 착용하여 청결한 모습으로 실습하도록 감염관리가 되고 있다.



이 사진은 공조실이며, 석션기 진공 펌프와 오일 프리 콤프레셔가 203호와 실습실까지 연결되어 있다. 학생들이 실습 후 이곳에서 석션기 진공 펌프와 오일 프리 콤프레셔 사용 매뉴얼을 보며 기계를 작동시켜 실습 시 사용하는 석션기와 에어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2팀-3학년 황수빈, 권미르 / 2학년 김민재, 김상현, 박예원

"저희가 꽃비 내려드릴게요"

치위생학과 제 3대 학생회 '우화(雨花)'



제 3대 치위생학과 학생회 조직도



<가톨릭관동대학교 치위생학과 제 3대 학생회장 김서연>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제 3대 치위생학과 학생회장 19학번 김서연입니다. 우선 이번 학생회장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동기와 선배를 지지해주신 우리 치위생학과 학우분들께 늘 감사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1년동안 제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학회장, 부학회장과 마음을 모아 함께 학생회로 활동하는 우리 '우화(雨花)'의 임원들에게도, 늘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을 지켜봐주시는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9학년도의 어리고 미숙한 학회장 김서연의 모습이 항상 제 머리와 마음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형성되어 있지 않던 우리 치위생학과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매일의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숙제들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동기들의 믿음과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학우들 덕분에 그때의 미숙함과 부족함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과 배움을 얻었고 우리 동기들을 위해 다시 잘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장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이 자리에 섰고 남은 제 대학생활동안 치위생학과의 기둥을 단단하게 세울 것 입니다.

더 이상, 신설과라는 단어 뒤에 숨어 신설과의 부족함을 정당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3대 치위생학과는 3학년 첫 실습과 함께 실습 총메뉴얼과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 속 수업 및 활동 대책안, 기존에 없던 과 동아리를 만들어 부족했던 결속력을 다지고 동시에, 선후배들과 함께하는 치위생학과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모든 학우의 발자취를 남길 것입니다.

학회장으로서 저의 목표는 한가지입니다. '우화(雨花)', 치위생학과 학생으로서의 모든 순간들이 비처럼 차갑고 외로웠던 기억이 아닌, 화양연화로 기억될 수 있다면, 새롭고 어려운 그 무엇도 피하지 않고 받아들여 꽃비로 내려드릴 것입니다.

언제까지 후배들의 빈자리에 차가운 기운만 남아있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기 전까지 학생회와 선배들의 뜨거운 열정과 학과의 애정을 우리들의 강의실에 가득 채워두겠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거리두기'가 아닌 '옹기종기' 모여 선후배들과 마음을 나누는 날이 다가오길 바라겠습니다. ☺

<가톨릭관동대학교 치위생학과 제 3대 부학생회장 권미르>

안녕하십니까. 가톨릭관동대학교 제 3대 치위생학과 부학생회장 19학번 권미르 인사드립니다.

우선 2021년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통해 높은 투표율로 참여 해주신 치위생학과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학우 여러분들이 믿고 지지 해주신 만큼 1년 동안 저희 치위생학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느새 가톨릭관동대학교 치위생학과가 신설된지 3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나날들이기에 아직 많은 것이 완벽하지 않지만 단합된 모습의 치위생학과를 만들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 우화가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후배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학우들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있는 학교생활에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비대면 강의로 인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단결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힘 쓸 것이며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꽃비 가득한 화양연화로 추억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아 비처럼 내리는 꽃이라는 뜻의 ‘우화(雨花)’라는 슬로건으로 2021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화는 치위생학과로서 모든 순간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겸손한 자세와 당당한 태도로 역사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공약은 ‘오픈채팅방 탄력적 운영을 통한 양방향 소통 개선, 투명한 학생회비 관리, SNS 카드뉴스 제작 (학과 및 교내 주요 뉴스 전달), 학생 복지 사업 (실습실 관리, 실습 물품 공동구매 및 관리)’입니다. 이처럼 공약 이외에도 치위생학과 학생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며 학우 분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학생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맡겨주신 자리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봄내음 가득한 4월에 치위생학과로서의 매 순간이 꽃비 가득하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한, 함께 할 치위생학과"

설레는 우리들의 첫 만남 - 치위생학과 신입생 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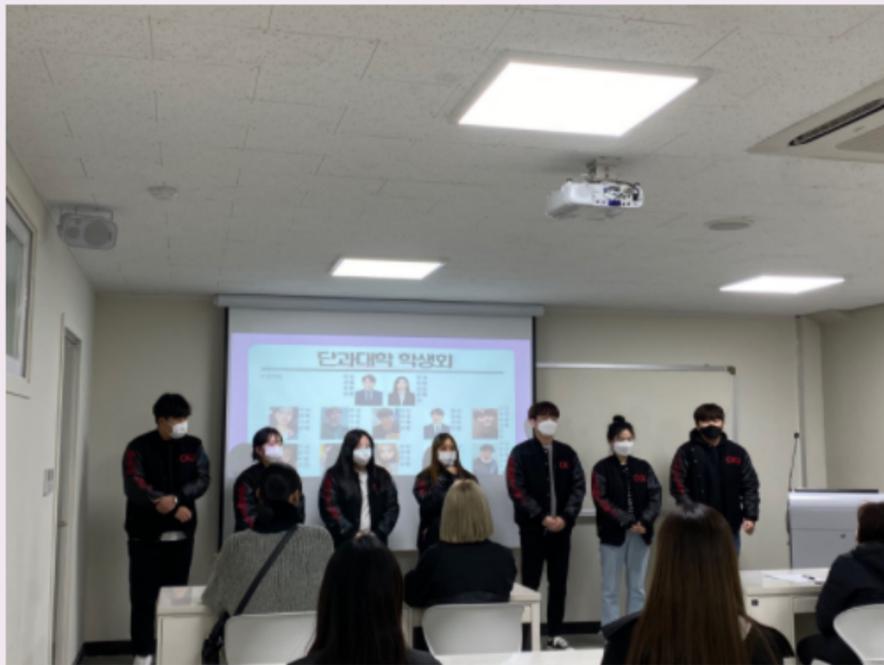
- 일시 : 2021년 3월 9일(화)
- 장소 : 가톨릭관동대학교 마리아관 및 바오로관(202-2)
- 대상 : 치위생학과 21학번 / 21년도 편입생
- 시간 : 14:00 ~ 16:00

3월 9일 치위생학과의 첫 행사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이 진행되었다. 2,3학년 선배들은 코로나로 인한 대면 입학식 미시행으로 아쉬웠던 마음을 모두 담아 열정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준비를 하였다. 모든 행사 모임의 중심 장소인 '마리아관'에서 신입생과 선배들의 첫 대면 후, 간단한 교내 주요 건물 소개가 이어졌다. 신입생들은 치위생학과 전공 강의실 및 실습실이 있는 바오로관 202호로 옮겨 선배들의 안내에 따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입장 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두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방문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였습니다.)



학회장의 첫 인사말로 오리엔테이션의 시작을 알리고 치위생학과 학과장 최다예 교수님, 전임 교수 정유연 교수님께서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말과 함께 앞으로 치위생학과 학생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덕담을 해주셨다. 이어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며 신입생들을 가장 기다린 과학생회 '우화'의 임원들과 3학년 도우미들의 소개 시간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신입생들의 첫 학교 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선배들의 도움과 조언이 필요하다. 특히 비대면 학교생활로 선후배들의 교류가 막힌 이 시점에서 교내 학생회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교내 학생회의 구분을 알려주고자 과학생회, 우리 단과대인 의료융합대학 학생회 'To.you'의 임원들이 직접 신입생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며 학생회가 신입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주었다.

또한 신입생 대상으로 하는 교내 학군단(ROTC) 교관님과 후보생들께서 직접 방문해주시어 학생들이 직접 알아보기 쉽지 않은 학군단에 대한 설명을 쉽고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오리엔테이션의 꽃인 학과 소개 시간에는 치위생학과의 2019년, 19학번 선배들의 1년을 전체적으로 사진과 함께 돌아보며 우리 치위생학과의 대학생 생활 모습을 신입생들에게 소개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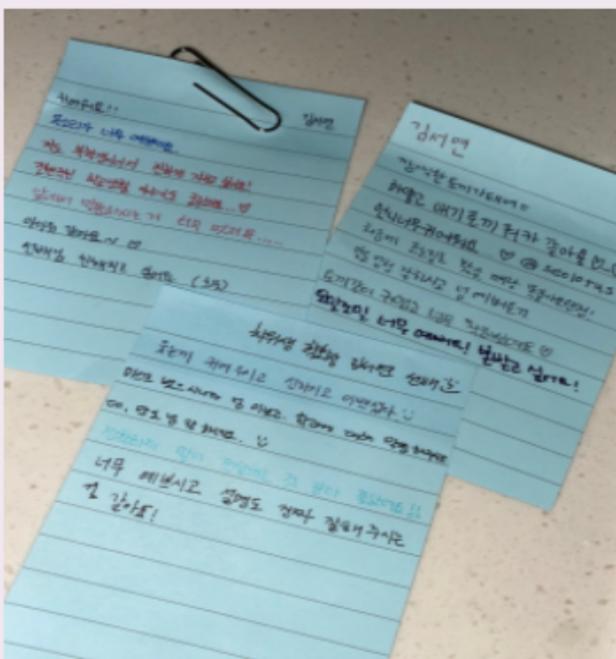


학회장과 선배들은 비대면으로 조금은 지루한 새내기 시절을 보내야하는 신입생들에게 학교와 학과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 위하여 현재 3학년들과 함께 처음 생겨난 실습실을 견학하고 치위생학과만의 특성을 자랑하는 '우리학과 상징 색을 담은 연보라빛 과잠, 실습복, 실습기구, 덴티폼, 오픈가운' 등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년이 된 지금 선배들도 어려워하는 본교 홈페이지 이용법과 수강신청 방법 그리고 교내 및 학과 학생회비에 대한 설명으로 전반적인 학교생활 꿀팁을 후배들에게 설명해주었다. 특히 학교생활만큼 어려울 대학교 전공공부법에 대한 설명을 위해 직접 3학년 과탐 선배가 적극적으로 나서 신입생들을 위해 자신이 직접 필기하고 사용했던 노트, 공부법 등을 피피티로 준비하여 설명해주고 전화번호를 교환하며 선배와의 첫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치위생학과에 첫 교내 동아리가 여러개 생겼다. 아직 창설 전이었던 봉사동아리 ‘덴티어’와 홍보동아리 ‘이요’의 계획을 발표하며 동아리의 포부 및 신입생들의 적극 모집을 권장하였다. 19년에 신설되어 아직 3기인 치위생학과의 역사는 부족하지만, 그만큼 만들어내야 할 것들도, 단단하게 만들 기회도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 신입생들의 많은 관심으로 선배들의 교류와 역사 기록이 끊이지 않을 바라는 바이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신입생과 선배들의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이였다. 서로의 어색함을 깨기 위해 선배와 후배들끼리 그리고 신입생들끼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첫인상을 적어주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였다. 서로 어색해 정적이 흐르는 시간이 되면 어찌나 하는 선배들의 걱정과 무색하게 신입생들의 적극적인 모습과 밝은 웃음이 준비한 선배들을 뿌듯하고 마음 따뜻하게 해주었다.

우리들의 예쁜 추억 하나 추가!



그동안 선배, 후배 그리고 신입생들 마음에 자리하던 차가운

'코로나 블루'는 저리가고

그날만큼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연보라빛'이 가득차던 따뜻한 날이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열자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웃으며 대화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티 후기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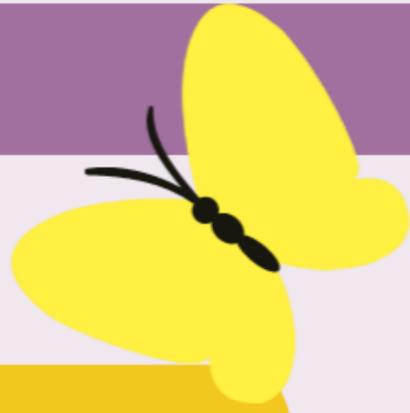
나는 치위생학과 오티에 참석하기위해 학교에 처음 가보았다. 학교에 떨리고 긴장 되는 마음으로 갔지만 모두 웃는 얼굴로 반겨주어 긴장이 조금이나마 풀렸었다. 오티는 친구들을 실제로 보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 오티를 통해 학교 건물, 학과 공부법, 동아리, 커리큘럼, 취업, Rotc 등등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고, 강의실과 실습실도 돌아다니며 구경할 수 있었다. 실습실은 엄청 넓고 깔끔했다. 실제 치과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신기하고 나도 빨리 실습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학교에 오기전에 모르는 것 투성이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우리 학과는 생긴지 아직 3년 밖에 되지않아 교수님과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이 의미깊게 다가왔다. 그러므로 가톨릭관동대학교 치위생학과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있을 오티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유익한 여러 정보들을 듣고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박소연_19학번 편입생 ♥

어느덧 내가 대학생이 되어 첫 OT를 간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아침 일찍 나섰음에도 OT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여 서둘러 간신히 도착했다. 도착했을 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어색하고 부끄러웠다. OT가 시작하고 온라인으로 목소리만 들었던 교수님들을 직접 뵈 수 있어서 연예인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학생회장 선배님들께서 “치위생학과”에 대한 정보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기대되는 학교생활을 상상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궁금했던 실습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실습실이 운동장만큼 진짜 컸고, 학교에서 가장 큰 실습실이기에 선배님께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말씀에 괜히 내 어깨도 으쓱해졌다. 어색함 속에 굳이 사진을 찍고 싶었던 나는 소심하게 나의 눈과 뒤 배경에 실습실이 조금 보이게 찍었다. ‘아 내가 원래 이렇게 소심했던가 하하’ 모두가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너무 어색했지만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첫인상에 대한 생각들을 적고 빙고게임을 해서 그래도 웃으면서 마무리가 된 거 같아서 너무 좋았다. 학교생활의 꿀팁과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거 같아서 OT에 참여하기 잘했다고 생각했다. 또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대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나에게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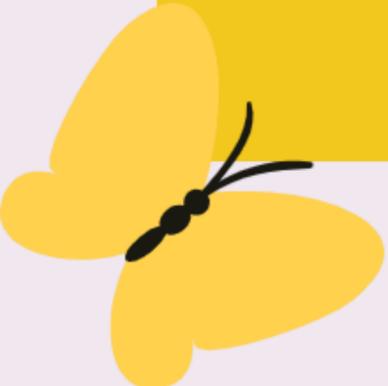
♥ 김서희_21학번 ♥

오티 후기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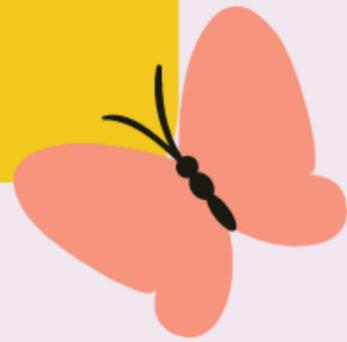
신입생 오티 10분 전 신입생들을 데리러 마리아관 앞으로 갔을 때 다들 서먹하고 부끄러워서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예상은 했었지만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어색함을 부수자는 의미로 준비한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이 되었을 때 다들 아까의 수줍은 모습은 어디로 가고 승부욕에 눈멀어서 빙고판 째려보면서 게임하는데 너무 귀엽고 재미있었다. 근데 애들아 상품 초코에몽이야~..

♥ 박상아_20학번_제 3대 학생회 '우화' 기획부장 ♥



처음으로 후배들을 만나는 자리여서 너무 설렘도, 긴장도 됐는데, 막상 후배들 보니깐 너무 반갑고, 귀여웠어요><!!내가 1학년일때도 생각나구 ㅎㅎ3학년 동기들이랑 열심히 준비하고, 발표도 하니깐 뿌듯했고, 나중에 대면수업하면 선후배들끼리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당~치위생화이팅!~!

♥ 이은주_19학번_<선배와의 만남, 전공공부법 등 오티 도우미> ♥



기사 제보 받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평소 하고 있던 본인의 생각, 실습 소감,
자기자랑 등등!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
제보: 010 2959 9089 이요 대표 박예진



3팀-3학년 김서연 / 2학년 박상아 / 1학년 김서희, 인도윤
디자인팀-3학년 박예진, 조영민 / 1학년 심재연, 전희율